

민주 중앙위, 5·4 전대 룰 조건부 가결

대의원 50%+권리당원 30%+여론조사 20%

친노·주류 요구 '국민참여선거인단' 일부 반영

민주통합당의 5·4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경선 룰이 온갖 우려곡절 끝에 조건부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당내 친노·주류 세력은 모바일 투표 유지를 위해 실력 행사도 불사, 제대로 된 성찰보다는 국민 참여를 명분으로 당권에 집착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27일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5월 4일 임기 2년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정기 전당대회 개최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

와 함께 지도 체제도 당부위원회에서 의결한 단일성 지도체제 도입 방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하지만, 중앙위는 지도부 선출 방식으로 모바일 투표 대신 제기된 '대의원 50%+ 권리당원 30%+일반국민 여론조사 20%'의 기준 룰에서 '일반국민'의 문항을 빼는 조건으로 전대 룰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는 지난해 6·9 전대와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국민참여선거인단 36만 5000명의 전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친노·주류 진영의 주장을 일부 반

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대 준비위원회에서 구체적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마련해 당부위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기로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부위에서) 관련된 당규 개정안이 이뤄지면 차기 지도부는 대의원 비중 50%, 권리당원 30%, 일반국민·일반당원·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등이 포함된 여론조사 비중 20%를 반영해 선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전대 룰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 간의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주류 측의 윤호중 의원은 "원안을 통과시키되 국민여론조사 20%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당규에서 정하기로 하는 것에 대한 중앙위 부대의

견을 달아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전대준비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 "국민여론조사에서 국민을 빼고 당규를 통해 여론조사 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걸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안에 따라 전준위에서 친노·주류 측이 주장해 온 국민참여 선거인단 36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시행하기로 한다면 비주류 측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예상된다.

비주류 측에서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의 상당수는 친노·주류 측이 경선 과정에서 동원한 그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비주류 중진 의원은 "당이 존재 위기에 선 상황에서 계파 유불리만 따지며 기득권을 지키려고 드는 친노·주류 세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친노·주류 세력의 행태는 결국 그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노·주류 측으로 평가받는 민주당 현역의원 41명은 이날 중앙위원회에 앞서 성명을 내고 "당 혁신의 단초가 될 당헌·당규 개정안이 열린 정당으로 거듭나는 민주당의 길을 가로막아선 안된다"며 "6·9 전대와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은 당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이들을 배제시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U대회 자원봉사자 12만명 양성

오늘 자원봉사학교 개교식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12만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운태)는 28일 오후 2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학교 개교식을 갖고 12만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개교식에는 강운태 위원장과 조호권 광주시의회의장, 유관기관·단체장, U대회 각 분야에서 국제행사 운영요원으로 활동하게 될 자원봉사 신청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다. 조직위는 자원봉사학교장으로 노성태 광주문화재단 대표를 임명할 예정이며, 개교식은 축하공연과 학교장 임명장 수여, 자원봉사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자원봉사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광주U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지금까지 접수된 3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1단계 교육과정인 기본교육을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중 본인이 선택한 교육장소와 일정에 맞춰 각 구청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광주U대회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학교에서 실시하는 단계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홈페이지(www.gwangju2015.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희기자 redplane@kwangju.co.kr



민주통합당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박기춘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전국 시·도지사들이 27일 오전 국회 여의도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생현안 정책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종기 비대위원, 송영길 인천시장, 김원주 전북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문 비대위원장, 박 원내대표, 설훈, 문병호, 박홍근, 배재정 비대위원. /연희뉴스

"농정원, 세종시 아닌 나주로 이전을"

"동북아상품거래소 광주에 설치해야"

민주당 비대위-시도지사 정책간담회

전남도는 27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농정원의 세종시 이전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농업 관련 4대 기관과의 연계성,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서남해안관광

레저도시 건설을 위해 간척지 양도·양수를 위한 평가기준을 명문화해 줄 것과 중앙정부내 추진 부처 일원화도 건의했다.

또 지난 7일 개통한 이순신 대교의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과 쌀 소득직불금의 물가 상승률 반영,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우주항공산업도시 조성,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등도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당을 지지했고, 국회의원 43%와 광역단체장 8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면서 "가진 '공약사업 점검위원회'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 공약사업을 지키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는 또 이명박 정부가 공약을 했다가 무산된 동북아상품거래소 광주 설치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며, 서울의 증권거래소, 부산의 선물거래소와 삼각축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올 공무원 466명 신규 채용

광주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466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 토목, 사회복지 직렬 등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을 구분 모집한다.

시는 또 채용의무비율(장애인 3%, 저소득층 1%)을 초과해 장애인 직렬은 18명(4.9%), 저소득층 직렬은 11명(3%)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도 4명(1.1%)을 선발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이공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공직 진급을 위해 공업(일반기계·전기), 보건, 시설(일반토목·토목), 방송통신 직렬 18명을 9급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직급별 필기시험 일정과 채용인원은 4월 27일 소방직 23명, 8월 24일 8·9급 404명, 10월 5일 7·9급 이공계 고졸, 보건·환경연구사, 농촌지도·연구사, 교육행정 등 39명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민주당은 호남 기반 영남 패권당"

오승용 전남대 연구 교수

현재 민주통합당에 대해 '호남에 대한 차별적 시각에 포획된 호남기반 비호남(영남) 패권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오승용 전남대 연구교수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정치에서 호남의 역할' 토론회에서 "현재의 민주당을 호남당이라고

힘을 가진 영남에 의해 민주당의 호남색에 대한 비판 담론만 여론 시장에 유통됐다. 그 결과 심지어 진보진영 내에서도 호남을 물갈이 대상, 낡은 정치의 상징으로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특히 정치적 리더십, 득표력, 선도적 의제설정능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호남 정치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화 패러다임의 변화 지속적인 인구 및 경제력의 감소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저하 유희적 지방자치 등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조선대 지방민 교수는 "호남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비판적이면서도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지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동일한 목표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후보와 제3정당이 등장할 때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할까"라며 제3세력의 대안 가능성을 크게 보았다.

영남대 김태일 교수는 "호남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시대를 앞서가는 선택을 해왔고, 호남의 선택은 한국정치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며 "그러나 한국사회 여론시장을 지배하는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야당은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야당의 호남색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모두 호남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호남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시대를 앞서가는 선택을 해왔고, 호남의 선택은 한국정치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며 "그러나 한국사회 여론시장을 지배하는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역구 축소... 비례 100석 증원 바람직

19대 총선 적용엔 새누리 호남 1석·민주영남 7석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다한 사표(死票) 발생 방지를 위해 지역구 의원 소수를 축소하고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중갑 조사관은 27일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내고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적당대표, 정치적 소수대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특히 현행 소선거구 방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영·호남에서 한 정당에 의석이 편중되는 지역주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표 발생으로 대표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안으로 거론됐던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초과 의석'이 생기면서

의원정수가 변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단위 비례제가 아니라 권역 단위의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조사관은 의원정수 300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국구를 7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의석을 10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정수는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으로 돼 있다.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릴 경우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7석이 배분돼 지역별 편중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조사관은 또 의석배분의 기준으로 인구·유권자수, 투표수보다는 득표수를 기준을 삼는 게 가장 비례성에 부합한다고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매 · 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사구정원)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은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토지 급구!

(매수자 대기) **2억~10억**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야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 "담양" 무인텔
- 객실 : 32개
- 현 상임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장(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중앙공인중개사

부동산 구함

- ☆.0피트 밀집지역 병의원 신축부지 약 250평 내외
- ☆.지하철 운천역 인근 광종간 대로변 사옥부지 150평 내외

대지,전,답,임야

- ☆.광안구 동산동 학동마을 인근 전 5,400㎡(1,634평)
- ☆.매매가 평당9만원
-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 ☆.매매가 평당150만원
- ☆.광안구 송촌동 자연부지 답2,988㎡(904평)
- ☆.매매가 평당60만원

전원주택지

- ☆.광안구 오운동97번 시내버스중점 전원주택지(전원마을)전2,436㎡ (737평) 매매가 평당 27만원

총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하신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소남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찰분과 얼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벨011-602-2632
(광주은행 신봉암점, 대인동 소정사건리점)

급매 상가/원룸

- ▶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원 월세794만
- ▶ 1층 편의점 1개
- ▶ 월 21개, 투룸 4개
- ▶ 토지면적 : 330.58㎡ (100坪)
- ▶ 건축면적 : 737.19㎡ (223坪)
- ▶ 매매가 6억 8천(용자 2억4천 4백 포함) 보증금 4천7백만 원, 월세 794만원 용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 3억9천9백만 대출이자 5.7% 월 116만원 공제하면 월순 수익 678만원 연수익을 20% 편익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하시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의: 동아공인중개사 011-647-4747

유동화자산매각

- ▶ 순천시 조래동 587-4의 2필지
- ▶ 에코그리드 호텔
- ▶ 토지2008㎡(607평)
- ▶ 건물22759㎡(6,684평)
- ▶ 감정가격 450억4천
- ▶ 매매가격 220억

문의 : 011-684-3886